

중국 현대 문학 속의 토비 세계 - 姚雪垠의 《長夜》를 중심으로

김 미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토비’라는 문학기호 | 2. 토비가 된 사람들 - 생동하는 인물형상 |
| II. 《장야》 넘나들기 - 사실과 허구 사이 드러나는 토비세계 | 3. 토비의 일상생활 - 금기와 은어(黑話) 속의 내면세계 |
| 1. 그들은 왜 토비가 되고 싶었을까? - 향촌의 권력관계와 토비의 역할 | 4. 서술 시각의 변화와 그 의미 - 모순 속에서 성장하는 쥐성 |
| | III. 나가는 글 |

I. 들어가는 글 - ‘토비’라는 문학기호

토비(土匪)는 중국 역사에 뚜렷이 실재했던 집단이지만 그들을 규정짓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은 통치집단에 대해 원심력을 갖는 사회집단, 즉 체제 밖의 사람들이란 면에서 중국의 전통적 유협(游俠) 또는 유맹(流氓)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토비는 유협이나 유맹과는 구별된다. ‘토(土)’라는 말 자체가 토지에 묶인 강렬한 지방성, 지역적 토착성을 내포하면서 자신의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유(游)’ 또는 ‘유(流)’와 상대적인 의미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런 토비의 활동은 최소한 중국에서 고대국가 성립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도적(盜跖)은 그의 傳奇的 색채로 말미암아 전국시대 이미 토비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고, 나중에 토비의 수호신이 되어 전통적으로 토비가 늘상 출몰하는 곳에서는 화려한 사당 가운데 그의 동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올리며 기리기도²⁾했다. 중국 역사에서 폭력과 불평등이 편재하는 모든 시기, 모든 곳에는 토비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토비는 분명히 관방의 용어이다. 지배계층의 시각으로 토비를 정의하자면 적개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에 이르는 이들이 농촌과 산간벽지를 근거지로 무장약탈행위를 일으키는 재야의 비합법적 집단이다. 이런 토비는 기존체제에 당연히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따라서 중국의 역대 권력자들은 도(盜), 적(賊), 구(寇) 등의 용어를 남발하며 비적이란 말을 각종 무력의 방식으로 기존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집단의 의미로 사용했고, 나아가 자신의 정적을 깎아내리는 용어로도 사용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부터 匪라는 새로운 모멸적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 匪자는 도비(盜匪), 비도(匪徒), 토비(土匪)와 같은 여러 합성어를 만들어냈다. 이제 匪는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각각의 출신 내력과 성격에 따라 회비(會匪), 교비(教匪), 역비(逆匪), 연비(煙匪), 병비(兵匪), 협비(俠匪), 의비(義匪) 등으로 적용되었고, 활동 지역에 따라 호비(胡匪), 호비(湖匪), 해비(海匪)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漢族의 팽창정책으로 산간벽지로 내몰린 소수민족을 약탈집단으로 호명하여 묘비(苗匪)라고 부르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아예 정치적 적대자끼리 상대방을 모비(毛匪), 장비(莊匪), 공비(共匪), 홍비(紅匪) 또는 관비(官匪)라 부르며 자신들만이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을 지녔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여러 가지 비(匪) 가운데 토비라는 말은 20세기 이후 일반화된 것으

1) 진보량 저·이치수 역, 《중국유맹사》, 26~28쪽 진보량은 이런 의미에서 유(流)는 유(游)와 같은 의미이며, 청대부터 이미 사농공상 등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고용노동에 종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다.

2) 로이드 E. 이스트먼,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307쪽.

로 보인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토비라는 말은 매우 유익한 조어였다. 토(土)라는 글자가 붙음으로서 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운동이 토지에 묶여버린 지역 변방의 사소한 것이 되어 중국 전역을 휩쓰는 유동적 광역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³⁾이다. 이렇게 토비문제는 폭력을 동반한 범법자들에 의해 불거진 한정적인 지역의 치안 문제로 치환됐다.

이와 같이 중국 역사에서 토비 문제는 그 심각성과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토비 세력을 이룬 집단 자체가 대부분 문맹이라 자신들에 대한 진실한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며, 남아있는 자료는 대부분 관변 및 지배계층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중국 근현대에 이르러 중국 각지에 산재하던 국지적 토비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중국 전역이 토비의 영역으로 변하고, 모든 비상사태를 적나라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중국이 토비의 생존방식을 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전통적 통치자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관방 권력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상당수의 보통의 중국인들은 신비롭고 남성적인 토비세계에 대해 낭만적 태도를 보여왔다. 관뺨민반(官逼民反)하여 양산박에 숨어든 《수호전》의 영웅들이 체천행도(替天行道)하는 이야기나 토비기질 다분한 《삼국지》의 세 명의 의형제가 義氣를 외치며 권력을 쟁취하다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확실히 중국 민간 문화심리에 원초적인 윤리적 미적 감수성을 새겨 놓았다. 관변의 언론을 대변하는 이들을 제외한 중국의 상당수의 신지식인들은 체제 밖에 놓인 토비의 흥폭함에 경악하면서도, 동시에 거의 본능적으로 그들이 반항하는 동기를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사 속에 실재했지만 권력자들에 의해 지워진 사람들, 그들에

3) 필 빌링슬리 저, 이문창 역, 《중국의 토비문화》, 21-22쪽.

대한 기억과 상상은 문학 속에서 적잖이 이루어졌다. 토비를 항일영웅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샤오쥘(蕭軍) 등 이른 바 동북작가군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방의 시각을 전도시켜 토비 자체가 묘사의 주요대상이자 당당히 서술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야오쉐인(姚雪垠)의 장편소설 《기나긴 밤(長夜)》일 것이고, 취보(曲波)의 《임해설원(林海雪原)》에 이르면 교체된 주류세력의 시각과 재분류된 토비의 형상이 조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팡팡(方方)의 《완마이(軟埋)》, 류전윈(劉震雲)의 《고향하늘 아래 노란 꽃(故鄉天下黃花)》 등 이른 바 신역사소설에서 밑바닥에 스멀대는 불안의 근원으로서 토비가 등장하기도 하고, 천충스(陳忠實)의 《백록원(白鹿原)》, 모옌(莫言)의 《붉은 수수 가족(紅高粱家族)》 《탄향싱(檀香刑)》, 위화(余華)의 《원청(文城)》 등에 등장하는 토비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작품 속의 당당한 주인공이거나 역사와 사회의 중대한 구성요소이다.

본 논문은 姚雪垠의 장편소설 《長夜》를 중심으로 문학 속에 구현된 중국 토비세계의 실체를 탐구한다. 이 작품은 중국 근대사에 있어 토비의 극성시기를 직접 건너온 작가의 실체함을 담고 있고, 토비라는 집단의 복잡한 존재양상과 당시 중앙군, 군벌,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국공양당, 지방의 향신 및 홍창회 같은 민간무력조직과의 뒤얽힌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무엇보다 중국현대문학사상 처음으로 토비가 일부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와 내력을 지닌 집단으로 등장하여 강렬한 사실성과 문학적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長夜》는 국내에서 대단히 생소한 작품이다. 국내에서 《長夜》는 번역소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전문연구도 아직 나온 적이 없다.⁴⁾ 따라서 본 논문은 최대한 《長夜》라는 작품 자체를 깊이

4) 국내에서 중국 토비를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과 저역서는 대부분 역사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필 빌링슬리 저, 이문창 역, 《중국의 토비문화》와 손승희, 〈20세기 초 중국의 토비어(黑話)와 토비문화〉는 직접 소설 《長夜》를 기초 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문학계에서는 토비를 다룬 연구

있게 소개하면서 토비 활동의 배후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근대시기 중국 토비들의 역사적 사회적 실체에 한발 더 다가서려 하는 역사학의 정신과 허구를 통해서 개연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학의 정신을 결합하여 《長夜》라는 작품이 지시하는 토비들을 양산하는 중국 사회구성의 구조적 모순을 밝혀내고, 집단으로서 토비뿐 아니라 개개인의 토비로서 그들의 내적 세계와 감정까지 파악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토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토비라는 존재의 인문학적 의미를 질의해 나갈 것이다.

II. 《長夜》넘나들기

- 사실과 허구 사이 드러나는 토비세계

《長夜》는 확실히 중국 현대문학계에서 보기 드문 체재를 다룬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작가 야오웨이인(姚雪垠)이 중일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8월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1947년 2월에 상하이 懷正文化社에서 출판됐다. 당시에 2천부가 인쇄됐지만 평단의 관심은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1924년 겨울, 당시 실제 나이 14세였던 작가의 작품 속 분신 타오취성(陶菊生)의 실제 체험담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취성이 다니던 허난(河南)성 신양(新陽)의 교회중학이 군벌들의 전란으로 조기 방학에 들어가자, 그는 둘째 형 친성(芹生) 등 몇 명의 일행과 함께 난양(南陽)의 고향집으로 귀향길에 오른다. 그러나 그들은 리수이모(李水沫) 토비대에게 사로잡혔고, 이후 1925년 봄까지 100여 일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했다. 토비가 정한 기한 내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곧바로 처형되는 위험천만한 인질(肉票) 생활이었다. 그러나 겁 없고 배짱 좋은 모습을 보인 소

자체가 드물고(동북토비의 문학적 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이 한 편 있을 뿐이다), 《長夜》는 줄곧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년 귀성은 토비대의 눈에 들어 두목 왕산샤오(王三少)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⁵⁾ 이후 귀성은 인질이면서 토비 (부)두목의 양자⁶⁾라는 특수한 신분 속에서 여러 토비들 및 토비를 자원하는 청년들, 향촌의 지주, 주민, 군대, 비밀결사와 광범하게 조우하며 허난성 서쪽 귀퉁이 농촌에 자리잡은 토비대의 흥망성쇠를 목도한다. 작품은 시종일관 소년 타오귀성의 시각으로 살인 방화 약탈 강간으로 점철된 토비생활의 진면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빈곤과 기아와 불평등의 절망 속에서 토비가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 폭력적인 수단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끝없이 우울한 내면도 드러낸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실존했던 인물로 모델로 하고 있고 지명 또한 실제이며, 사건이 일어나고 스토리가 펼쳐지는 정황도 대부분 실제 상황과 부합⁷⁾된다. 또한 지방색채가 농후한 허난의 토착어와 토비 고유의 언어습관, 은어(黑話)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작자가 직접 작성한 촘촘한 각주를 통해 그들 언어의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결국 《長夜》는 허구적 창조로서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중반 중국 농촌사회와 농민들의 보편적인 생존양상을 다룬 인류학 사회학 민족학 방면의 사료적 가치 또한 막대한 것이다. 이 작품은 토비들의 발생 원인, 인적 구성, 언어, 생존방식 뿐 아니라 당시 향촌사회의 권력관계 등에 대해 어떤 작품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야오쉐인 역시 자신의 창작 목적은 ‘역사적 생활의 진실’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
- 5) 필 빌링슬리, 《중국의 토비문화》, 238쪽, 111쪽. 필 빌링슬리는 극단적인 남성 세계였던 토비집단은 인질 가운데 거칠게 다루더라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사람, 특히 씩씩한 젊은이가 우대받았고, 대소 두목은 인질 중에서 양자 양녀를 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예로 姚雪垠의 경우를 들고 있다.
 - 6) 귀성은 처음에 왕산샤오의 양자가 됐지만, 왕산샤오가 토비내부의 갈등으로 내쫓긴 이후 부두목 웨정리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 7) 王金龍, 〈長夜的寫實, 虛構與藝術加工問題探析〉, 《南都學壇》 第2期, 第42卷. 작품에 등장하는 토비들은 실존했던 인물로 형상했지만, 인명은 가공한 것이다.

이것은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허구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적다. 소설의 주인공 타오취성은 바로 나다. (...) 나는 창작 시에 아슬아슬하고 기이한 이야기 전개나 낭만적인 과장의 필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소년시절 본래 그대로의 한 단락의 경력을 보여주려 했다. 이러한 제재에서 스틸 넘치는 신기한 이야기를 꾸며 넣기는 쉽다. 그렇지만 나는 최대한 현실주의적 창작방법으로 내 소설을 쓰려 했다. (...) 나는 주인공 菊生의 각성 수준을 역지로 높이지 않았고, 빈고농 출신인 녹림호걸들의 각성 수준과 행위준칙도 끌어올리지 않았다. (...) 만일 창작 시에 일부터 취성과 몇몇 주요 인물들의 각성 수준을 끌어올렸다면 (...) 모종의 성공은 거둘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예술의 진실을 몰각하고 역사적인 생활의 진실에서 멀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1920년대 허난 농촌 생활의 중요한 측면과 그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면모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을 뿐 (...) 결코 역사적 삶의 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려 했고, 고의로 사상선전을 덧붙이지 않았다.⁸⁾

《長夜》가 1947년 상하이에서 출판됐음을 감안하면, 작가가 국공 양당의 정치 이데올로기나 역사담론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공간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진실’로 간주하면서 작품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 취성과 토비들의 계급적 각성, 또는 혁명가적 모습을 역지로 강조하지 않고, 실제 그대로의 사실만을 썼다는 언급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長夜》는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

8) 姚雪垠, 〈爲長重夜印‘長夜’致讀者的一封信〉, 《長夜》, 인민문학출판사, 1995. 2쪽. 이하 姚雪垠, 《長夜》로 표시한 출처는 모두 같은 판본임.

这是一部带有自传性质的小说。虽然也有虚构，但是虚构的成分很少。小说的主人公陶菊生就是我自己。(...)我在进行写作时，不追求惊险离奇故事情节，不追求浪漫主义的夸张笔墨，而力求写出我少年时代一段生活经历的本来面貌。像这样题材，加一些惊险离奇的故事是很容易的，但是我尽可能按照现实主义创作方法写这部小说。(...)我决定不将主人公陶菊生的觉悟水平故意拔高，也不将贫雇农出身的‘绿林豪杰’们的觉悟水平和行为准则拔高。(...)倘若我在写作时故意将菊生和几个主要人物的觉悟水平拔高，(...)如果那样写，纵然能获得某种成功，但是它将丢掉艺术的真实，也背离了历史生活的真实。忠实地反映二十年代河南农村生活的重要侧面和生活在那样历史条件下的人物的精神面貌，是我要写这部小说的中心目的。(...)但是我决不背离历史生活的真实，故意加进去某些思想宣传。

회구조 분석을 실행하진 않지만, 이 작품을 통해 실제의 토비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1. 그들은 왜 토비가 되고 싶었을까? – 향촌의 권력관계와 토비의 역할

민국 초기 허난 지방은 독특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절망적으로 빈곤했다. 중국 농촌의 빈곤문제는 이전부터 여러 정치적, 제도적, 생태환경적 상황과 더불어 상존하는 것이었지만, 이 시기에 오면 그 동안 농촌사회를 지탱했던 지주-소작인 관계는 와해되고 어느 정도 지주에게 부과됐던 전통적인 유교적 의무도 변질되었다⁹⁾는 데에 문제의 중대성이 있다. 《長夜》의 왕청산(王成山)의 푸념은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은 땅 빼기 하나 남겨주지 않았어. (...) 너는 부잣집에서 살았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 (...)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소작농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자 우리 집은 그대로 끝장나더라. 울 어머니는 수레 소 농기구 같은 것을 모조리 팔아치워 간신히 빚을 갚았고, 난 머슴이 될 수밖에 없었어.¹⁰⁾

특히 허난의 농촌이 피폐된 것은 군벌의 등장과 관련 깊었다. 그들은 군비조달을 위해 지주를 압박했고, 지주는 가혹한 세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 20세기 초 경한(京漢), 농해(隴海) 철로의 부설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적 가치가 증가한 허난은 군벌혼전시기 전장의 중심축이 되고, 지역 사회 전체가 군사화 되면서, 군인의 권위가 다른 어느 곳보다 우월한 군인세계로 변모했던 것이다.

9) 필 빌링슬리 저, 이문창 역, 《중국의 토비문화》, 64쪽.

10) 姚雪垠, 《長夜, 5장》, 32~33쪽. 祖上没留下三亩田, 二亩地, (...)你是富里生, 富里长, 不晓得穷人的日子是多么艰难! (...)我爷我爹都是佃户, 可是我爹一死就打了瓦。我妈把车牛农具都卖光才还清债。到我这一代, 唉, 就只好当伙计啦。

이런 군인세계는 토비와 홍창회의 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비와 홍창회 모두는 군벌통치의 수탈이 점증됨에 따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하층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허난성은 일찌감치 白郎¹¹⁾, 老洋人, 樊鍾秀 등 근대 중국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토비집단의 발생지이자 근거지이고, 여러 연구자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토비세계¹²⁾였다. 따라서 허난에서 토비가 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문제였다. 다른 한편 허난은 토비에 대항하며 ‘총칼이 들어오지 않는(刀槍不入)’ 주술을 신봉했던 민간 자위조직 홍창회의 세계이기도 했다. 토비의 대척점에 있었던 홍창회는 한때 수백만의 무장세력을 기반으로 군벌시대 정치 균형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는다. 따라서 군인, 토비, 홍창회 삼자의 관계는 상호 대립-치환-융합과 분열의 복잡한 상호 인과관계였다.

《長夜》는 이러한 허난성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長夜》의 시발점은 奉直전쟁이다. 즉 봉계군벌과 전쟁 중이던 직계군벌 우페이푸(吳佩孚)가 평위상(馮玉祥)의 배신으로 허난 신앙으로 도피하자, 신앙 곳곳이 병사와 참호로 들끓는 전쟁처가 되고, 격화되는 전란으로 지주와 상인이 산으로 도망가자 변경과 향촌에서 토비가 발호하는 상황¹³⁾이 그것이다. “낮에는 군대이지만 밤이면 토비가 되는”, “토비와 군대가 한통속”¹⁴⁾인 상황 속에서 쥐성 일행은 위험천만한 귀향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다.

이후 쥐성이 리수이모 토비단을 따라다니며 목도한 것은 토비와 군대, 홍창회, 그리고 향촌의 지주 및 하층민들과의 얽히고설킨 관계였다. 군벌 군대는 토비대를 평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군세확장을 위해 토비단을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키려 했다. 토비대원 가운데도 군대에 편입돼서 정식군인이 되고 관리가 되고 싶은 자가 적지 않았으며, 몇몇 야심가형 토비 수령

11) 백랑은 원래 白郎이다. 그러나 관부에서 고의로 白狼(흰이리)이란 별호를 붙였고, 이후 광범하게 白狼으로 불렸다. 《長夜》에도 白狼으로 표기되고 있다.

12) 손승희, 《근대 중국의 토비세계-하남의 토비 군벌 홍창회를 중심으로》, 18~30쪽, 필 빌링슬리, 《중국의 토비문화》 59쪽 등.

13) 姚雪垠, 《長夜, 2장》, 6쪽.

14) 姚雪垠, 《長夜, 1장》, 5쪽.

은 군대편입을 출세의 지름길로 여겼다. 반면 패전, 해산, 물자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에서 토비로 변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쥐성이 잡혔던 토비대의 수령 리수이모가 바로 군경력 출신의 토비였다.

이에 반해 토비와 홍창회 사이에는 타협이나 무마 공작이 없다. 기괴한 함성과 주술을 외며 달려드는 홍창회에 토비대는 줄곧 가장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홍창회는 비밀결사 성격을 띠는 민간의 자위조직이지만, 토비를 방어한다는 명목 하에 지역민들에게 잔혹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창회는 자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토비와 한패로 취급했다. 때문에 리수이모 토비대에는 홍창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전에 홍창회가 비홍창회 지대에 들어갈 때, 마을사람 모두 다 토비들과 내통한다고 여겼다. 이에 마을 사람을 대대적으로 죽이고 불사르고 강간했으며 농기구와 농사짓는 소, 들고갈 수 있는 온갖 물품을 약탈했다. 지금 토비대가 홍창회를 치러 간다고 하자 가난한 백성들은 복수도 하고 당했던 것처럼 약탈도 하기 위해 토비대를 따라나섰다.¹⁵⁾

주민을 보호하고 토비를 진압해야 하는 군벌이 토비 보다 더한 수탈을 하면서 오히려 토비가 더 창궐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결사조직 홍창회마저 방화 살인 약탈 등 토비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 보통의 지역민들에게 군대, 토비, 홍창회는 어느 때고 보호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이전에 당한 것처럼 똑같이 약탈하기 위해, 그때그때 지역 정세에 부합하는 무장조직에 합류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 정세와 상황 속에서 향촌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장 밀

15) 姚雪垠, 《長夜, 24장》, 152쪽. 往日, 紅槍會打進非紅槍會的地帶, 認為村村通匪, 大肆燒殺奸淫, 並且趁機會搶劫耕牛農具和各種能夠拿走的什物。如今土匪去打紅槍會, 窮百姓隨着前往, 一則報仇, 二則要照樣搶劫東西。

접한 편에 속했던 것은 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관병이 오느니 토비에게 약탈당하는 편이 낫다’는 지역 여론에 ‘토끼는 제 굴 곁의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兔不吃窩邊草)’는 토비 규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비가 근거지 주변에서 약탈행위를 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토비들의 내력과 관계가 있다. 토비 대부분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고, 토비대는 지역 유력자와의 제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반대급부로 최소한 다른 군대나 토비대의 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다. 《長夜》의 薛崗과 茨園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薛마을과 茨촌 두 마을은 구세도가와 대지주가 적잖게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 토비부대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두 마을은 정말 민국초의 왕성한 느낌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열 집 가운데 일고여덟 채 집들은 보전되어 있었다. (...) 몇 년 전 시골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만해도 야간에만 모이는 영세한 토비들은 두 마을을 건드리지 못했다. (...) 시간이 더 지나자 혼란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오밤중에 토비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땀나무 더미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집 몇 칸에 불을 지르고, 인질을 끌고 갔다. 놀란 지주들은 어떤 이는 성내로 도망갔고 어떤 이는 급히 총을 사들여 집을 지켰다. 그러나 가장 영리한 방법은 토비두목을 몇 명 끌어들이거나 가난한 친척이나 친족에게 아예 토비가 되도록 종용하는 것이었다. 薛正禮(薛正禮)는 바로 동족 친척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비가 되었다가 결국 리수이모의 기치 아래로 들어간 사람이었다. 리수이모 토비대의 중요간부들은 대부분 이 근방 15리 이내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곳곳마다 파괴와 황량함만 남아있는 지금, 薛崗과 茨園 일대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세계 같았다.¹⁶⁾

16) 姚雪垠, 《長夜, 27장》, 176쪽.

薛崗和茨園这两座围子, 一方面有不少的旧世家和大地主, 一方面也是这一个杆子的老巢。两座围子虽然远不知前清末年和民国初年的旺气, 但房子还保存有十之七八(...)当几年前乡下才乱的时候, 那班夜聚明散的零星刀客, 都不敢得罪薛崗和茨園, (...)再后来, 越发乱了, 竟然有土匪偷袭进围子来, 放火烧一两座柴禾垛, 几间不很重要的房子, 并且拉票了。地主们惊慌起来, 有的搬进城里住, 有

또한 결혼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의 하층 농민청년들이 토비에 지원 하는 경우도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비가 된다면 위험한 만큼 여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에 다가갈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여성을 강탈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형제는 넷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장가를 갔고, 숙부 셋은 모두 평생 홀아비로 지냈어요. 우리 형제는 셋인데 큰형은 여자를 못만난 채 이미 반쯤 무덤에 들어갔고, 먹고살려고 외지에 나간 둘째형은 몇 년째 소식도 없어요. 내가 빨리 여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 집은 아예 대가 끊긴다구요.¹⁷⁾

이렇게 보면 민국 초기 중국의 농촌에서 향촌 주민과 토비와의 공존은 생존의 비책에 가까웠다. 토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비가 된다는 것은 빈곤과 기아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뿌리내릴 수 없었던 사람들, 전통적 가족의 유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형제애적 결속과 안정감을 제공받는 것이고, 심지어 지역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수호하며 체천행도 하는 영웅적인 의적의 삶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薛마을 출신 쉐정리가 마을로 돌아가면, 지주 향신들이 잔치를 열어주고, 토비 지원자가 줄을 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2. 토비가 된 사람들 – 생동하는 인물형상

의赶快买枪看家, 但最聪明的办法是拉拢几个土匪头, 或找几个穷亲戚、族人下水去蹚, 而薛正礼就是受到同族的支持而拉人架杆子, 归到李水沫的旗下。李水沫的杆子上的重要干部, 差不多都是这方圆近, 十五里以内的人。所以在到处残破与荒芜的今日, 大体说来, 薛岗和茨园这一带还像是一个世界。

17) 姚雪垠, 《長夜, 26장》, 170~171쪽.

위의 언급은 홍창회와의 전투에 뒤늦게 합류한 吳씨 성의 농민이 한 말이다. 俺老子弟兄四个, 只有俺老子一个人成了家, 三个叔都要光身汉苦了一辈子. 俺弟兄三个, 大哥没有女人, 如今已经半截子入土了. 二哥出去吃粮, 好多年没捎回来一封来信啦. 你想, 我要是不赶快弄个女人, 眼看俺这一家人就要绝啦.

군대-토비-홍창회로 이어지는 향촌사회의 권력구도와 토비로서 기대할 수 있는 생존의 이익이 토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토비가 된 사람들이 갖는 각각의 내력과 개성은 그러한 구조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 《長夜》 속의 토비 인물형상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준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수령 리수이모다. 그는 언뜻 문약한 서생 같은 외모이지만 온갖 전설에 휩싸인 신화적 인물이다. 16세에 토비가 됐고, 25세에 군대에 초모되어 군벌전쟁에 참가했던 경력도 있다. 특히 군단장 시절에 부하인 최여장이 탈영했을 때 보여준 의기, 침착함, 용기, 그리고 홀로 정찰을 나갔다가 적에게 발각됐을 때 보여준 임기응변의 천재성은 모두 리수이모 신화의 한 장¹⁸⁾을 장식하는 것이었다. 홍창회와 전투 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에도 꿈쩍 않던 그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편을 마저 피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총 두 방으로 위협에 처한 자오스즈(趙獅子)를 구해낸다.¹⁹⁾ 그러나 그는 약탈의 욕심에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위해 여성 30여명을 사당에 가둬 모조리 불에 태워 죽일 것을 명령²⁰⁾하고, 전체 토비대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적 의리에 얽매일 뿐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진 못한다. 그는 상호 견제하는 서로 다른 소군벌 가운데 한 쪽과 연합하면서 자신의 토비대를 다른 군벌의 토벌전에 노출되게 했고, 이로 인해 토비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는 성공한 토비의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집단의 우두머리이지만 이념이나 명분보다 의리가 중요하고, 《삼국지》의 관우처럼²¹⁾ 극적인 상황도 연출할 줄 안다. 그는 영리하고 기민

18) 姚雪垠, 《長夜, 15장》, 91-94쪽.

19) 姚雪垠, 《長夜, 25장》, 163-165쪽.

20) 姚雪垠, 《長夜, 26장》, 172-173쪽.

21) 돌아와서 아편을 마저 피우겠다며 총을 잡는 장면은 확실히 데운 술이 식기

하고 잔혹살벌하면서 어둡고 음울하다. 그는 고독하고 쓸쓸한 전통 협객의 분위기, 허무의 퇴폐적 매력 속에서 수하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물은 집단의 부두목이자 쥐성의 의부가 되어준 쉼정리이다. 그는 전투 시에 용감한 전사이지만 평시에는 부하들을 부드럽고 공평하게 대해주고 아편 습관도 없는 성실한 심성의 소유자다. 쥐성의 원래 의부였던 왕산샤오가 퇴출됐을 때, 위협에 빠진 쥐성을 다시 양자로 삼아준 것도 그였고, 잔인한 살육이 자행될 때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지했던 것도 그였으며, 토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을 청년들에게 正業에 종사하며 살길 권유²²⁾하는 것도 그였다. 심지어는 천신만고 끝에 인질들 대부분이 죽거나 사라지자, 쥐성이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도 그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토비가 됐고 또한 자신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회성 토비, 즉 義匪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자오스즈는 가장 폭력적이면서 어린 아이 같은 천진함을 동시에 지닌다. 백발백중 명사수이자 개인적 복수를 위해 두 외삼촌을 처절하게 처단하는 사나움과 잔인함도 갖고 있다. 아이들과 뛰어놀며 유희의 즐거움도 느끼고, 음험한 모략가형 인물인 치샤오(七少)에게 이용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토비생활 자체를 즐기며 자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토비생활 밖에 없음²³⁾을 믿고 있다. 분노, 폭력, 순수의 야만적 힘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류라오이(劉老義)와 왕청산(王成山), 천라오우(陳老五)는 농민에서 토비가 된 사람들의 전형적 유형을 보여준다. 류라오이는 토비가 된 젊은 남성들의 기초적인 욕구, 가족을 이루고 대를 이어 땅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농민적인 욕구를 대표한다. 전투를 치를 때면 상대를 향해 “분 처바른 매춘부, 후발 전족녀, 쌍꺼풀을 지닌 처자 18명”²⁴⁾을 천연덕스럽게 요구하기도

전에 돌아오겠다며 적진으로 달려간 관우의 모습과 닮아있다.

22) 姚雪垠, 《長夜》, 27장, 36장》, 180쪽, 255쪽.

23) 姚雪垠, 《長夜》, 30장》, 205쪽.

24) 姚雪垠, 《長夜》, 18장》, 110쪽. “十八个油青脸、倒脚跟、双眼皮的大闺女!”

했던 그는 결국 납치한 소녀와 정식결혼해서 부모 모시고 가정꾸리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소녀가 친척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예의를 지키며 미련 없이 포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왕청산의 소원은 자신의 총을 갖는 것이었다. 총이 있어야 전투를 할 수 있고 약탈도 할 수 있으며 재물도 모을 수 있다. 왕청산은 “총을 갖고 돈을 모아 먼 곳으로 가서 땅을 사면 어머니가 춥고 굶주리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없다. 토비인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연루되어 곤혹을 치를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출세도 바라지 않는다. “관리가 되는 것은 다른 이의 시체를 밟고 가야 하는 것”이라서, 자신은 “어머니만 무사하면 중국 천지의 산과 바다를 자유롭게 누빌”²⁵⁾ 소박한 꿈을 꾸다. 왕청산의 총에 대한 열망은 평범한 농민의 꿈을 보여주지만, 토비사회가 결코 평등사회는 아니며 총의 유무가 등급을 차별짓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천라오우는 재물 약탈에 가장 열심이다. 어린이의 바지, 발싸개마저 약탈하면서 물건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을 탓하고, 약탈을 하다 부대에 복귀하지 못해 걱정을 사기도 하며, 쥐성의 장삼은 물론 세뱃돈까지 빼앗아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그는 단 한번도 개인적 보복을 위해 살생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때는 남아있는 혈벗은 가족들을 부탁²⁶⁾하기도 한다. 농민의 근검절약, 인색함과 웅색함을 보이지만 일말의 선량함도 남아 있는 사람이다.

3. 토비의 일상생활 - 금기와 은어(黑話) 속의 내면세계

그러나 토비의 외형적인 일상은 살인, 방화, 간음, 약탈의 생활, 그로 인

‘油靑臉’는 당시 매춘부가 (수은 등이 함유된) 값싼 화장품을 사용해서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경우가 많았다는 저자 각주에 따라 위와 같이 번역했다.

25) 姚雪垠, 《長夜》, 5장, 37장, 5장, 33쪽, 259쪽, 33쪽.

26) 姚雪垠, 《長夜》, 16장, 25장, 39장, 41장, 97쪽, 160쪽, 272쪽, 287쪽.

해 죽거나 처형될 수 있는 연속되는 불안과 공포의 생활, 굶어 죽거나 배가 터져 죽는 고락이 반복되는 생활, 동분서주하는 유동적인 생활, 사회에서 내쳐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생활, 비록 그 사회 속에 생존하지만 그 사회와 완전히 화합하지는 못하는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다. 토비들의 은어(黑話)와 금기는 바로 이런 불안정한 삶의 결과였다.

《長夜》에는 많은 토비 은어와 금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토비생활에서 그런 은어나 금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것은 큰 허물이었던 것 같다. 쥐성이 무심코 두 팔로 뒷짐지는 자세를 취했다가 두목의 어린 줄개에게 단단히 추궁당하는 장면²⁷⁾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토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밥(飯)이었다. 그런데 飯의 발음 fan은 토비들이 가장 불길한 글자로 생각하는 犯과 동음이다. 이에 배 속에 밥을 채우는 것이 마치 박 속을 채우는 것과 같다하여 ‘밥을 먹다’는 말은 ‘填瓢子’라 하고, 더 나아가 성씨가 같은 동음자인 范씨인 경우도 아예 성을 瓢子라 바꿔 부른다. 그래서 쥐성 일행을 납치했던 토비 瓢子九의 본명은 范九였다. 마찬가지로 ‘官条子’는 ‘官路’, 곧 대로의 뜻이고, 帶條 역시 길을 안내한다는 帶路의 뜻이다. 路는 비밀이 드러난다는 뜻을 지닌 露와 동음자이기 때문에 기피한다.

이외에도 늘 이동해야 하는 토비들은 停자를 기피하여 ‘停住’는 ‘此足住’로, 부상으로 피를 흘릴 때는 그 부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색깔을 띠다(掛彩)’라고 표현했다. 인질을 처형할 때는 죽인다는 말 대신 ‘집으로 보낸다’ 또는 ‘고향으로 보낸다’고 했고, 토비대가 마을 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는 ‘물을 대다(灌)’, 퇴각할 때는 ‘물을 빼다(出水)’라고 했다. 대결관계에 있는 다른 무장세력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말도 있다. 도창 불입(刀槍不入)의 믿음과 괴성의 주문을 외며 달려드는 홍창회는 硬肚(총칼이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몸), 홍창회가 지배하는 지역은 硬地, 이에 반해 토비가 활동하는 지역은 軟地였다.

27) 姚雪垠, 《長夜, 5장》, 29쪽. 小伙子瞪了他一眼说:“不要背抄手!你来了好几天,连这点规矩都不懂?”他吓了一跳,连忙放下双手,离了门框。

토비 은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토착어를 기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말도 있었다. 《長夜》 속에서 토비들은 스스로를 蹠將²⁸⁾이라 부른다. 은밀한 남색 상대 미소년을 兔孩子, 결혼한 여성이 까만 머리를 등 뒤에 길게 땅아서 늘어뜨린 모습을 일컫는 黑脊梁沟子, 袁世凱 시대에 구조된 은화를 가리키는 袁世凱, 토비를 따라 들어온 이류 도적 二道毛子, 영세한 토비 霸爺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토비들은 뒷짐 지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는 절대 금기였다. 뒷짐 지는 자세는 팔이 뒤로 묶여 체포된 자세와 유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관리 앞에 잡혀가 심문받거나 머리가 잘리기 직전의 상황이 연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밖에 만두 터진 쪽을 다른 사람 앞으로 놓아서도 안됐다. 타인 앞에서 입을 여는 형상이 마치 자백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젓가락은 상 위에 뉘어 놓아야지 그릇에 올려놓거나 걸쳐놓으면 안됐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자세 또는 죽음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이었다.²⁹⁾

토비의 은어와 금기에는 그들의 일상생활 및 대외적 폭력행위 이면에 내재된 세계관과 가치관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정세에 대한 판단도 여실히 보여준다. 토비의 은어와 금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fan’과 관련된 상황이란 점은 이들 일상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행위가 언제나 공적 권력에 의해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모두 ‘자기 보전’의 기본 욕구와 관련된 것인 셈이다. 그들은 끝이 없는 생존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대내적인 결속과 비밀 유지를 위해, 또는 험난한 삶에 대한 심리적 조절을 위해 그들만의 언어와 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28) 필 빌링슬리, 《중국의 토비문화》, 63쪽. 蹠將이란 허난지구 광산과 수로 굴착의 막일을 맡았던 蹠匠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姚雪垠은 《長夜》주에서 蹠將이란 표현은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江湖話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이상의 내용, 姚雪垠, 《長夜, 5장》, 29-30쪽 등 참고.

4. 서술 시각의 변화와 그 의미 - 모순 속에서 성장하는 쥐성

《長夜》의 서술 시각은 독특하고 특수하다. 《長夜》는 쥐성이라는 14세 소년을 내세우는 3인칭 작가시점에 가깝다. 그렇지만 《長夜》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고, 쥐성은 실질적으로 20여년 전의 작가 자신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바라보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한다. 이에 서술자와 쥐성 사이의 거리는 소멸되고 1인칭 시점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직접 토비생활을 보고 듣고 겪었던 14세 소년 주인공 쥐성과 그 기이한 경력을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서술하는 35세의 작가 야오웨이 사이의 시간적 사회적 거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서술의 주인공인 14세 소년 쥐성은 이중 신분의 인물이다. 그는 부모가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처형되는 인질(肉票)이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몸값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목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면서 토비집단 내에서 인정받고 환심도 사게 되었으며, 자신의 지위를 통해 인질로서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들쨌형을 소극적으로나마 보호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인질이면서 양자, 피해자이면서 수혜자인 양가적 감정은 쥐성에게 극심한 내적 긴장과 변동성을 불러일으킨다. 《長夜》는 그 모순된 상황에서 요동치는 내면을 숨기지 않았다.

쥐성은 원래 천성적인 낭만기질에다가 고향의 야만사회와 구소설에서 획득한 영웅사상을 지닌³⁰⁾ 소년이었다. 게다가 이미 큰형을 통해 몰락한 집안 자제들이 탈출구로 생각하는 정식의 군대는 실제로 어두운 지옥³¹⁾에

30) 姚雪垠, 《長夜, 3장》, 19쪽.

31) 姚雪垠, 《長夜, 5장》, 34쪽.

불과함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걸핏하면 살해위험을 받는 둘째형의 처참한 상황만 아니라면, 호탕하고 용감하며 명사수인 토비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고통스러울게 없다³²⁾고 생각했다. 게다가 전설처럼 전해지는 리수이모의 신화에 빠져든 그는 점점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며, 자신도 제갈량처럼 신출귀몰하게 부대를 이끄는 상상을 하기에 이른다.³³⁾ 토비를 영웅시하는 쥐성의 태도는 홍창회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대춧빛 말 위에서 눈부신 붉은 모자를 쓴 리수이모를 선망과 숭배의 눈길로 응시³⁴⁾하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토비들에 의해 ‘쌍수있다(有種)’고 여겨졌던 쥐성이 토비집단에 동화되며 스스로 토비화되는 과정은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로도 나타난다. 홍창회를 추격하며 도달한 마을의 가옥에 직접 불을 지르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오스즈가 외삼촌을 처단할 때도 눈 깜짝 하지 않고 농담을 치던³⁵⁾ 쥐성은 급기야 劉胡庄에서 직접 살인에 가담하기에 이른다.

노인은 땅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냈다. 부두목의 호위가 그에게 총알을 한방 먹이자 그는 사지를 떨더니 곧 조용해졌다. 부두목은 그 노인을 길가로 차버렸다. “야, 여기 좀 봐!” 장명차이(張明才, 쥐성과 함께 인질로 잡혔다가 토비 심부름꾼이 된 소년-역자 주)가 쥐성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아직 안죽었어!” 쥐성은 부두목에게 자신의 용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뜩 긴장한 채로 바닥에서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다.³⁶⁾

32) 姚雪垠, 《長夜, 15장》, 89쪽.

33) 姚雪垠, 《長夜, 15장》, 94쪽.

34) 姚雪垠, 《長夜, 25장》, 166쪽.

35) 姚雪垠, 《長夜, 16장》, 96-101쪽.

36) 姚雪垠, 《長夜, 20장》, 121-122쪽.

老头子用力在地上挣扎, 发出来痛苦的呻吟。二驾的护驾的照他的身上补了一枪, 他立刻安静下来, 颤抖着伸开四肢。二驾把他向跑边踢了一脚。“嗨, 你看”张明才拉一下菊生说, “他还没有死讫哩!” 为要向二驾表示自己勇敢, 菊生浑身紧张地从地上拾起来一根木杠, 照着老头子的头上打了下去。

비록 “취성은 몽둥이를 쳐든 그 순간에 이미 두려움과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³⁷⁾면서 살인귀 같은 다른 토비와 어느 정도 의식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만, 작가가 자신의 살인 행위를 고백하는 위의 장면을 서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잔혹 행위 이후에도 끝없이 지속된 토비들의 방화와 살육이 취성의 살인의 기억을 환기하며 그에게 양심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 변화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점차 자신의 영웅인 리수이모에 대한 선망과 숭배의 마음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힐끗 눈길을 던질 때마다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쓴 것 같은 섬뜩함”을 느끼고 그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함”³⁸⁾에 떨고 있는 것이다.

이제 취성은 인질생활 초반의 감각, “이 사람들은 왜 인성을 잃게 되었을까?”³⁹⁾는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너무나 쉽게 악행을 저지른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취성은 한시바삐 토비들에 동화되어 그들과 같은 편임을 인정받고, 생사의 본원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토비와 일체감을 느껴도 그 내면은 더욱 두렵고 창망한 것이었다.

취성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괴로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바탕 울고 싶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채 (...) 그는 묵묵히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았고, 자신도 어디로 갈지 몰랐다. 마당 밖으로 나가 보리밭을 배회하다가 한 그루 나무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머나먼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자오스즈가 문 앞에서 소리쳐 부르자, 그는 깜짝 놀랐다. 광야는 벌써 온통 창망해 있었다.⁴⁰⁾

37) 姚雪垠, 《長夜, 20장》, 122쪽.

38) 姚雪垠, 《長夜, 26장》, 169쪽.

39) 姚雪垠, 《長夜, 4장》, 28쪽.

40) 姚雪垠, 《長夜, 21장》, 135쪽. 陶菊生不知为什么满心难过, 只想到没人的地方放声哭一场。噙着满眶泪, (...) 默默地从屋里走了出去, 没有人问他要到什么地方去, 连他自己也不知道要到什么地方去。走出院外, 在麦田边徘徊一阵, 随后又倚着一棵树, 久久地望着远方的云天出神。当听到赵狮子在门屋口呼唤时, 他不觉吃了一惊, 因为旷野已经是一片苍茫了。

토비영웅에 대한 열렬한 숭배에서 회의로의 전환은 당연히 쥐성의 내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토비의 생활이 영웅적 기개가 넘치는 낭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거칠고 모진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비극적인 것이라는 깨달음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백랑의 노래⁴¹⁾는 빈곤과 절망에서부터 한 가닥 길을 뚫어내는 토비의 꿈을 보여주고, 그들의 꿈의 언저리에서 배회하는 쥐성의 내면에 울림을 준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반추하며 진정으로 토비들의 외롭고 고단한 삶 한 가운데로 스며들어 그들과 교감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토비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에야 토비가 된 사람들이 거의 다 좋은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됐어요.(...) 당신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토비가 된 거예요. 절대로 천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⁴²⁾

이제 쥐성은 몇몇 영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백랑과 황소(黃巢), 이틈왕(李闖王), 그리고 리수이모에 이르기까지 그저 “녹림의 영수 가운데 야심가”이며 “약자 가운데 강자”⁴³⁾였을 따름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쥐성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죽고 싶지 아니했던 중국의 광대한 토비 후보자들, 살기위해 본능적으로 반항했고 폭력을 행했던, 각자의 사연을 지닌 보통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토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토비가 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41) 姚雪垠, 《長夜, 37장》, 259쪽. 백랑님, 백랑 어르신, 부자를 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하느님 대신 도를 행하시네. 사람들은 모두 백랑을 사랑해. 싸우고 또 싸우면 빈부가 모두 균등해지리(老白狼, 白狼老. 打富濟貧, 替天行道. 人人都說白狼好. 再打三五年貧富都均了).

42) 姚雪垠, 《長夜, 39장》273쪽. “從前我以為當蹺將的都是壞人, 現在我才知道當蹺將的差不多都是好人”(…) “你們都是被逼下水的, 並不是天生的壞人.”

43) 姚雪垠, 《長夜, 42장》, 291-292쪽.

전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들의 삶에 질게 깔린 우울함과 허무함을 마주하며, 중국의 역사는 무수한 약자들의 피와 눈물로 쓰여진 ‘살육(殺)’의 역사로 인식⁴⁴⁾하는 것은 분명히 쥐성의 시각이 단순한 경험치를 넘어 인류 역사의 원상태에 대한 인류학적 고민과 함께 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독한 성장통 속에서 관방의 선입관이나 신지식인의 휴머니즘적 시각이 아닌 토비가 된 농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 속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의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Ⅲ. 나가는 글

《長夜》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쥐성이 고향집으로 가게 됨에 따라 토비들이 자신들을 기억해줄 수 있는지, 그리워해줄 것인지를 묻는⁴⁵⁾ 장면이었다. 늘 죽음과 함께 하는 생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존재가 쉽게 망각되는데 익숙한 토비들로서 누군가 ‘기억’하고 ‘그리워해준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감각이고 존재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 살고자 하는 생명의 정당한 욕구와 ‘살아있음’ 자체를 느끼는 정직한 감각은 근대 인도주의적 감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시적 폭력과 함께 토비 생활의 진정한 실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폭력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겼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탈행위에 가담하기 보다는 앞서서 죽음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선량한 順民일까? 그러한 무기력한 복종을 거부하고 폭력을 통해서라도 생존을 도모한다면 그들은 악인일까? 혹은 그들은 “약자 중의 강자”일 뿐이라서 방비가 철저한 유력자 보다는 저항능력이 없는 약자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경

44) 姚雪垠, 《長夜, 42장》, 291쪽.

45) 姚雪垠, 《長夜, 39장, 43장》, 271쪽, 296쪽.

우가 더 많았다면 그들은 사회와 절연한 비겁자들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토비들의 폭력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해진 악순환의 일부였다. 이미 온 사회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그런 불평등체제를 또다른 폭력으로 떠받치며 빈곤과 불안을 창출한 권력자들도 같이 져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원이뒤(聞一多)는 아예 토비정신을 중국인의 영혼의 한 부분으로 격상시키며, 위선과 허위에 찬 중국사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대부분 중국인의 영혼 속에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토비가 투쟁하고 있다. (...) 유가 도가 토비는 (...) 도둑놈 사기꾼 토비로 바꿀 수도 있다. 중국인이 볼 때, 삼자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토비가 가장 정직하고, 따라서 방비하기도 쉽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토비의 전신인 목가만이 그 동기가 가장 광명정대한 것이었다. 지금 국내에서 도둑과 사기꾼이 유와 도의 기치 아래 날마다 토비 소탕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국외 인사들까지 부화뇌동하여 말과 글로 앞다퉈 그들을 토벌하고 나선 것은 정말이지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⁴⁶⁾

중국의 토비문학 연구자 羅維는 《長夜》의 토비들에 대해 “내재적 자아와 주체의식이 결핍됐지만 완강하게 악의 방식으로 생존권리를 쟁취했던 사람들”⁴⁷⁾이라고 정의한다. ‘내재적 자아와 주체의식의 결핍’은 토비들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없었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악의 방식’이란 토비들의 폭력을 선악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폭력이 인간의 인간됨과 무관하지

46) 聞一多, 〈關於儒·道·土匪〉, 《聞一多全集》三卷, 469-473쪽.

在大部分中国人的灵魂里, 斗争着一个儒家, 一个道家, 一个土匪, (...)我认为假如将“儒家、道家、土匪”改为“儒家、道家、墨家”, 或“偷儿、骗子、土匪”(…)在中国人看来, 三者之中, 其实土匪最老实, 所以也最好防备。从历史上看来, 土匪的前身墨家, 动机也最光明。如今不但在国内, 偷儿骗子在儒道的旗帜下, 天天剿匪, 连国外的人士也随声附和的口诛笔伐, 这实在欠公允。

47) 羅維, 〈重讀姚雪垠的現代土匪題材小說‘長夜’〉,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제6기, 2012.

않고, 인류 역사와 문명 자체가 폭력으로 만들어진, 즉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또다른 폭력적 방법을 동원했던 폭력의 역사였다면, 폭력을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은폐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원이뒤의 비판은 선과 악,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폭력의 도덕적 감각을 독점해버린 중국 권력자의 위선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합법적 폭력을 규정하면서 모든 비합법적인 폭력에 대한 합법적 폭력의 특수성을 보장해주는 종교적, 휴머니즘적인 모든 초월성이 사라지고 나면, 폭력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구별은 완전히 각자에게 맡겨진다.⁴⁸⁾

이 때 각자에게 맡겨진 폭력의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만이 폭력의 정당성을 독점하기 위해 인류가 쉽게 고안해내는 것은 또 다른 초월적 이데올로기이다. 중국의 경우, 그것은 계급적 각성과 투쟁을 앞세운 농촌혁명, 폭력혁명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렇다면 ‘주체의식이 결핍’돼서 장기적인 포부와 목표가 없었던 《長夜》의 토비들은 이후 공산당의 끈질긴 전략과 정치적 인도 하에 한 사회를 뒤엎는 혁명역량으로 안착할 수 있었을까? 정치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토비들의 폭력적 에너지를 혁명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만민평등과 균분의 꿈을 이루어주었을까? 복잡하게 전개되는 중국토비들의 이후 상황은 《임해설원(林海雪原)》에서 천착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로이드 E. 이스트만 저(이승휘 역),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2002.

48)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41쪽.

- 르네 지라르 지음(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9.
- 손승희, 《근대중국의 토비세계-하남의 토비·홍창회·군벌을 중심으로》, 서남동양학술총서, 창비, 2008.
- 진보량 저(이치수 옮김), 《중국유맹사》, 대우학술총서501, 아카넷, 2001.
- 필 빌링슬리 저(이문창 역), 《중국의 토비문화》, 일조각, 1996.
- 손승희, 〈20세기 초 중국의 토비은어(黑話)와 토비문화〉, 《역사문화연구》, 2004.
- 손승희, 〈1910년대 후반 하남토비의 성격〉, 《중국학보》 제44집, 2001.
- 정겨울, 〈‘비인(非人)’에서 ‘의인(義人)’으로 —1930년대 동북작가 작품 속 토비(土匪) 형상의 문학적 변형〉, 《中國現代文學》 제86호, 2018.
- 姚雪垠, 《長夜》, 人民文學出版社, 1995.
- 聞一多, 〈關於儒·道·土匪〉, 《聞一多全集》 第3卷, 三聯書店, 1982.
- 王金龍, 〈‘長夜’의 寫實, 虛構與藝術加工問題探析〉, 《南都學壇》 第42卷 第2期, 2022.
- 羅維, 〈重讀姚雪垠的現代土匪題材小說‘長夜’〉,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6期, 2012.
- 秦方奇, 〈伏牛山文化圈与五四以来河南作家的小说创作刍议—以徐玉诺、姚雪垠、阎连科为例〉, 《探索与争鸣》 第6期, 2010.
- 趙小琪, 〈姚雪垠《長夜》对江湖世界的想象方式论〉, 《贵州社会科学》, 2011.

<Abstract>

“The Long Night(長夜)” is based on 100 days of actual experiences after writer Yao XueYin(姚雪垠), who was 14 years old at the time, was taken hostage by bandits in the winter of 1924.

In the special status of being a hostage and adopted child, Ju Sheng (菊生) encounters a wide range of bandits, young people who want to be bandits, rural landowners, residents, troops, and secret associations, and sees the rise and fall of the bandits located in rural areas on the western corner of Henan Province. “The Long Night” shows the bandit life of murder, arson, looting, and rape from the perspective of a boy, but at the same time reveals the gloomy inner side of those who had no choice but to become bandits in the despair of poverty and inequality. Most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re real characters and the place names are also real, and most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cident occurs are consistent with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ong Night” has great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values, as well as literary values, dealing with the survival patterns of Chinese farm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main character, Ju Sheng, faces the deep depression in the lives of bandits who had no other choice and recognizes China's history as a history of ‘殺’ written with the blood and tears of countless weak people. This clearly means that JuSheng's perspective goes beyond simple experience and is with anthropological concerns about the original state of human history. JuSheng is approaching questions about human nature while keeping his eye on Chinese farmers in a terrible growing pain.

Key Words : 《기나긴 밤(The Long Night)》, 야오쉐인(YaoXueYin, 姚雪垠), 토비(Bandi), 문학가치(Literary Value), 사료적 가치(Historical Value), 폭력(violence)